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학습 평가 방안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평가 지침과 이에 따른 수행평가의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상주여자고등학교 교사 노정

## 1. 머리말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은 ①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③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 ④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sup>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문화 전달주의적 교육과정이었다면 7차 교육과정은 5차 교육과정 이래로 주창되어 온 방법 중심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목표는 ‘지식의 획득’이 아닌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며, 교육 내용은 ‘학문적 지식, 개념, 원리’가 아니라 ‘언어와 의미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능 및 전략’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사용 능력이 강조되며, 교과서는 ‘학습의 한 자료’로서 잘못된 글이나 학생의 언어도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은 교과서의 글에 대한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능동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지도 방법도 분석적·해설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의 종합적인 탐구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가 또한 지필검사 위주의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평가,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정답에 대한 합리화와 근거 제시를 중요시해야 한다.<sup>2)</sup> 이는 최근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교육관과 맥락이 닿는 생각이다.<sup>3)</sup>

다시 말하면, 지식은 경험을 통해 구성되며, 학습은 구성적 과정으로 학습자가 지식을 내적으로 표상하고,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요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은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이 곧 발달이며, 오류를 통한 반성적 추상이 학습의 원동력이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대화가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시키며, 학습자들이 의미 구성을 위해 노력할 때 관점에 점진적인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 보다 큰 아이디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도구(물리적 수단과 기능)와 상징(언어, 수 지도 등과 같은 기호학적 수단과 기능)의 활용을 통해 촉진되며, 인간의 궁극적인 성취는 삶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7차 교육과정은 시행을 앞두고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sup>5)</sup> 그러나 이미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비

1)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p.3

2) 노명완 외,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1991, p.240

3) 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기본 가정과 교수 - 학습에의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식(앎)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한다. ②사람들이 사물에 부여하는 의미나 해석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다. ③지식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④지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이해의 적합성과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진전된다. ⑤일상적인 지식은 그와 동일한 세계의 일부인 일상적인 두뇌와 신체로부터 도출된다. ⑥지식은 지각과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 ⑦지식의 구성은 시간과 정열을 요구한다. ⑧지식은 맥락 지향적이다. - 조영남, “구성주의 교수-학습”,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4) 앞의 책에서 필자가 발췌한 것임.

5) ①우리나라 교육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으로 제시한 교육과정이라는 점, ②입시제도의 개선

판만 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고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평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7차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 지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미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중요시되는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sup>6)</sup>

## II. 이론적 배경 - 국어교과에서의 평가 원리<sup>7)</sup>

국어교육에서의 평가는 국어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마다 중요시하는 교육 내용의 본질과 특성은 다르게 마련이며,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평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어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언어를 통한 창의력·문제해결 능력의 평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국어교육의 특성은 ‘언어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궁극적으로 언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언어 능력이란 언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사고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의 평가는 언어 능력의 평가, 다시 말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능력의 평가이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보다는 좀더 고차원의 언어 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김광해·윤여탁·김중신·김창원·심영택, 1998).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미리 제공된 답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형 평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제한된 답만을 써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택형 평가와 다를 바 없는 단답형 평가로는 학습자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sup>8)</sup>

### 2. 언어로 이루어지는 구성적 반응의 평가

---

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실행된 교육과정이라는 점, ③취지는 좋으나 교사 수급의 불균형, 평가상의 문제 등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④한 학급당 학생 수가 충분히 줄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7차교육과정이 주장하는 수준별 수업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등...

- 6) 이 검토의 과정에서 필자는 “과정 중심의 평가는 과연 불가능한가?”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등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 7) 이론적 배경으로는 최미숙교수의 <국어교육 평가의 원리와 실제-‘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2>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이 논문에 재인용된 논문들은 각주를 생략하기로 한다.
- 8) 이러한 방향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것은 토론 중심의 수행평가다. 필자는 이에 따라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토론 중심의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았다.

### 1) 국어교육 평가에서 ‘반응’의 의미

국어과 평가에서의 ‘반응’이란, 주어진 문제 상황 혹은 질문에 대해 학습자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의 과정, 구체적으로는 “이해, 발견, 분석, 평가, 태도 등의 여러 요소를 함축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김대행, 1997b:55) 여러 형태의 응답<sup>9)</sup>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자에 따라 정서나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또 각 개인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같은 자료를 읽거나 또 같은 문학작품을 읽고도 생각하는 것 혹은 표현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렇듯 반응의 다양성을 허용하되, 다만 그 다양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주체적인 것이어야 한다.<sup>10)</sup>

### 2) 지식과 활동의 결합 문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 활동을 평가할 때, 자칫 지식 혹은 원리는 배제한 채 활동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자가 평가 장면에서 보이는 반응은 지식과 활동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과정 혹은 결과물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 할 지라도, 근저에는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적인 기반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언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으로 나타나는 지식적 기반을 되돌아보고, 언어 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식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평가해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할 때, 언어를 통한 구성적 반응의 평가에서도 지식과 활동이 결합된 평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최미숙, 1999a). 이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 실제적인 언어 상황 조성 and 종합적인 국어 능력 평가의 필요성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언어 상황과 맥락을 제거해 버리고 무턱대고 어떤 말을 하라거나 혹은 어떤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실질적인 언어 능력의 신장을 위한 조언을 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언어 상황, 즉 언어활동의 상황, 목적, 대상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활동의 실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서 언어 행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언어 능력은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9) 언어 능력의 평가에서는 평가 장면에서 부여되는 어떤 ‘자극(Stimulus)’에 대해 언어로 이루어지는 구성적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에서의 ‘반응’이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쓰거나 말하는 것”(Harris & Hodges, ed., 1995: 219)을 의미한다. 반응이란 항상 어떤 자극에 대한 응답의 형태를 지니는데, 특히 국어과 평가에서 자극이란 ‘이해와 표현 활동을 유발시키는 모든 언어 자료 혹은 문제적인 언어 상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0) 따라서 필자가 시도한 수행평가에서는 뚜렷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 모둠원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각 모둠에서 대표 학생을 뽑아 다시 발표하게 함으로써 다른 모둠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답이 나오는지 중요시하기보다는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모둠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 3. 통합의 원리에 입각한 평가

O'Malley와 Pierce에 의하면, '통합'이란 "언어 능력들의 통합, 어떤 경우에는, 내용 영역간 지식과 능력들의 통합(1995: 5)"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통합의 두 가지 측면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언어 능력들의 통합'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 영역간 지식과 능력들의 통합'이다. 여기서 '언어 능력들의 통합'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합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며, 내용 영역간 지식과 능력들의 통합은 교과간 통합의 문제, 그리고 지식과 능력의 통합 문제를 제기한다.<sup>11)</sup> 언어 능력들간의 통합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평가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통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식과 언어 능력들간의 통합은 각 활동에 관한 지식과 활동의 결합, 다른 한편으로 영역간 지식과 활동을 결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양상을 고려한다면(김대행, 1997a; 이도영, 1998), 서로 관련 있는 활동을 통합시켜 평가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 듣기 평가가 오로지 듣기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른 언어 능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이인제 외, 1997)나 읽기 활동은 읽은 내용을 다른 차원의 텍스트로 표현하는 행위를 내포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옮겨야 비로소 그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는 논의(우한용, 1998), 듣기는 기본적으로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통합적 수행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논의(서혁, 1999)<sup>12)</sup>

## III.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평가 지침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세분하고, 각 세부 항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어 교육 평가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가 계획

(1)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 있게 평가하되,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본질,

11) 김대행(1998)과 김성진(1999) 또한 통합적 평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김대행은 영국의 평가를 예로 들면서 영국의 영어교육은 영역간 그리고 교육 요소간에 통합적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지향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김성진은 문학 수행평가 철학으로 '통합'을 들고, '인식과 정서의 통합',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식과 활동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영역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2) 언어활동의 통합 평가는 언어활동의 측면뿐만 아니라 평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국어과 평가의 경우,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결합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택형 문항일 경우, 듣기와 읽기 능력 평가는 충분히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면서 평가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읽거나 들은 것을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는 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해 능력을 표현을 통해서 평가해야 한다면, 두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 태도의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한다. 국어과의 여섯 영역은, 영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역의 특성에 맞게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되, 국어사용의 실체를 평가하면서 본질, 원리, 태도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평가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의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평가의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할 때에도 서로 다른 영역을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 각 영역을 평가할 때에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 단, 지식, 기능, 태도는 항상 실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미리 알려 주어 평가가 국어 학습과 언어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게 한다.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즉, 평가의 기준과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하면서 학습자 자신이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평가받는지 명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미리 아는 것은, 국어 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평가 목적, 평가 상황, 평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전통적으로 학습자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해 온 평가 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질적 평가'라 한다. 다시 말하면, 질적 평가란 교수·학습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학습과정의 개선을 도움으로써 교사 개개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돕는 평가이다. 이러한 질적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점수나 석차보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아울러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및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5) 학습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한다.

이제까지의 평가는 학습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이것은 여러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결과 중심의 학습 평가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학습 결과가 중요하고 학습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교수·학습의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과 평가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학습자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정 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내어 보다 합리적인,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평가이다. 과정 평가는 태도, 관심, 흥미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에 용이하다. 학습자의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 보고서,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6) 학습평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 평가 도구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평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가 학습 목표에 적절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학습자의 학습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교수·학습 자료, 평가도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의 질을 높이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 2. 평가 목표와 내용

(1) 국어과 평가목표는 영역별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정한다.

(가) 듣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듣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청각, 식별, 사실적·추론적·비판적 듣기, 듣기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sup>13)</sup>

(나) 말하기 영역의 평가목표는 말하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말할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말하기 영역에서 어휘, 문법, 표현의 유창성, 발음 등 언어의 표현의 표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평가보다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말하는 내용의 생성과 조직 등 보다 본질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평가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기 영역의 평가는 주어진 목적, 상황, 대상을 고려하면서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말하는 언어활동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이다.

(다)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읽기의 본질에 대한 단어 이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읽기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읽기 활동은 주어진 글을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평가는 글에 나오는 사실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문항 형식도 미리 정해 놓은 답지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읽기 과정은 개별 문장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과정, 언어 자료의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선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의미 내지 아이디어를 추론하여 글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과정, 글의 의미나 내용을 구조화하거나 요약하는 과정 등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읽기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sup>14)</sup>

(라)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쓰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쓰기 능력은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글로 쓸 내용을 창안하고 선정하는 능력 및 자기 조정성, 작문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이해, 읽을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는 사회 인지적 능력, 우수한 글에 대한 감상력과 비판력, 통합적 사고력 및 통찰력 등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능력이다. 이러한 의미의 쓰기 능력은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도 구체화되기 어렵다. 쓰기의 과정 및 쓰기에 대한 지식의 학습 결과는 지식 습득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쓰기 능력 평가는 쓰기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쓰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국어 지식 영역의 평가 목표는 단편적인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언어 지식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과 언어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국어과에서 ‘국어 지식’ 영역을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국어 지식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국어 지식을 학습하여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실용적 목적에서 가치를 찾을 수도

13) 듣기는 정보 확인, 내용 이해, 내용에 대한 비판,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감상 등의 층위를 가지는 언어 활동으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언어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듣기 평가는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용을 비판하고 평가·감상하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듣기 학습을 통해 점점 변화하는 듣기 태도의 변화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1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합적인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어 보았다.

있다. 국어과에서 ‘국어 지식’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실용적 목적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은 언어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 문학의 수용 능력을 위주로 설정하되,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태도를 포함시켜 설정한다.<sup>15)</sup> 특히,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원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범주명으로 ‘문학 수용과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학 작품을 단지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창작’ 하는 활동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sup>16)</sup> 따라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도 이제까지의 방식에서처럼 ‘수용’의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측면까지 확장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하며, 또 평소애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서 읽는 ‘태도’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내용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가)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 관행을 지양하고,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한다.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평가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영역의 교육적 성취를 고루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국어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이 요인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선정한다. 국어 능력은 크게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해 능력에는 듣기나 읽기를 통해 말이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표현 능력에는 말하거나 쓰기를 통해 자신이 생각 하는 내부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된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현될 때 국어사용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평가 내용은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의 평가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 3. 평가 방법

(1) 모든 내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란 없다.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말하고 듣는 활동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의나 토론을 시킨 후 실제 상황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며,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글을 쓰게 하고 그 과정이나 쓴 글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2) 국어사용 능력의 평가는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되, 가급적 수행 평가를 적극 활용한다.<sup>17)</sup>

---

15)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원리와 방법의 이해, 개별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문학 영역의 교육 목적은 미적 감수성을 세련시키며, 문학적 상상력을 개발시키고,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언어로 포착하는 방식과 양상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16) 참고로, ‘문학 수용과 창작’에서 ‘창작’은 문예 창작보다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강조점이 있다.

17)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하던 선택형 중심의 평가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선택형 검사로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변화나 이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학습의 과정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특정 선택형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했는지 오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만으로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간접 평가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선택형 검사로 평가하기 쉽지 않

(3)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가) 듣기 영역의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지필 검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sup>18)</sup>

(나) 말하기 영역의 평가는 직접 평가 방법을 위주로 하되,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sup>19)</sup>

(다) 읽기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검사, 빈 칸 메우기 검사, 중요도 평정법, 요약하기,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sup>20)</sup>

(라) 쓰기 영역의 평가는 직접 평가 방법을 위주로 하되,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프로토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간접 평가란 글을 평가하는 주요 범주(예: 내용, 조직, 표현, 표기 및 어법 등)별로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완성형 등의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간접 평가 방법은 경제성과 절차의 간편성은 있으나 실제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간접 평가 방법보다는 직접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접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글을 쓰게 한 뒤 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글을 쓰는 목적, 독자 등 쓰기 상황을 제한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sup>21)</sup>

---

은 평가 목표와 내용은 직접 평가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수행 평가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 고차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직접 평가, 그 중에서도 수행 평가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8) 듣기 영역의 평가에서는 지필 검사, 포트폴리오,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관찰에 의한 듣기 평가는 형성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찰에 의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학기 말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말하기 평가 누가 기록부 방식으로 듣기 평가 기록부를 작성, 활용할 필요도 있다. 지필 평가 문항을 구안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듣기 자료를 들려 주고 평가해야 하며, 평가 상황과 평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답형, 서술형, 선택형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 내용도 음성, 어휘, 문장, 담화 등 여러 층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으며, 담화의 형식도 시(동시), 소설(동화) 등의 문학 작품과 대화, 소개, 토의 및 토론, 연설, 강연 등의 형식과 설명, 설득, 주장, 보고 등 담화의 목적과 평가 상황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말하기 영역의 평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실질적인 말하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자 평가도 간접 평가보다는 직접 평가를 중시하되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등 평가 상황의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평가, 학습자의 자기 평가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평가가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교육의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구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0) 선택형 검사는 답지의 문항을 4개나 5개로 하고 그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집단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문항 구성이 어렵고 주어진 글에 담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수준으로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며, 학습자의 답이 맞았거나 틀렸을 경우 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 진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빈 칸 메우기 검사(cloze test)는 글의 특정한 부분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학습자로 하여금 그 공란을 채우게 하는 검사이다. 빈 칸 메우기 검사는 형태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곧,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미완성된 부분을 채워서 인식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빈 칸 메우기 검사는 글 속의 어떤 부분을 공란으로 두느냐에 따라 음절 삭제형, 어절 삭제형, 내용어 삭제형, 기능어 삭제형 등으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다. 중요도 평정법(importance rating)은 일정한 글의 의미 단위를 대상으로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게 한 뒤 평가하는 방법이다. 읽기란, 글 속의 수많은 정보를 낱말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주제나 목적에 비추어 각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가려 낸다면, 그 자체가 벌써 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중요도 평정법은 읽기 능력을 재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기는 읽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체적 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독자의 이해와 정보의 수용 정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이 외에도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의 평가 방법이 있으며, 또 ‘읽기’ 영역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법이나 면접법 등의 평가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21) 교사가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여 누가적으로 기록한다면, 학습자의 능력이나 성향을 쉽게 파악할



(마) 국어 지식 영역의 평가는 지필 평가, 면접법, 조사법 등을 사용하여 국어 지식과 그 지식의 적용력을 평가한다.

‘국어 지식’ 영역에서의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어 지식의 습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서는 전통적인 지필 평가 방법, 예를 들어 선택형이나 완성형 등의 문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제재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국어 지식을 묻는 방식보다는 상황과 결합된 국어 지식 능력을 쟁 수 있는 별도의 문항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22)</sup>

(바) 문학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논술형, 면접법,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수용과 창작 능력을 평가한다. 문학 영역의 학습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서는 문학적 사고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평가 문항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sup>23)</sup>

(4) 평가 목표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역 통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이 여섯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가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영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할 경우, 영역 통합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하나의 장면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게 한 뒤 이 장면을 관찰하여 평가한다면 ‘문학’, ‘읽기’, ‘말하기’, ‘듣기’ 영역의 통합 평가가 가능하다.

#### 4.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학습방법, 교재나 평가 도구의 개선에 적절히 활용한다. 기존의 평가는 그 결과를 주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것에만 활용하곤 했다. 그러나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 판단뿐만 아니라 교수·학습방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재나 평가 도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좀더 질 높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

수 있다. 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는지, 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지, 고쳐쓰기를 하는지 등을 관찰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분석적 평가’란, 글을 쓰는 능력을 전체를 평가하기는 하되, 그 능력을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한 뒤 종합하여 전체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체적 평가’란, 글 쓰는 능력을 하위 범주화하여 각각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쓰기 기능은 분절된 하위 기능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습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프로토콜(protocol) 분석 방법’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때 그때 말로 하게 하여, 그것을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기록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 학습자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한 편의 글을 쓰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가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또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22) 또, 국어 지식의 활용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는 학습한 국어 지식을 실제의 국어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중시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어 지식’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 문장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활용 수준을 말하기 또는 쓰기 직접 평가의 한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 영역의 정의적 학습 요소인 ‘태도’ 요인은 학습자와의 구체적인 대면을 전제로 하는 면접법, 조사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3) .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법인 선다형 문항도 문학적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대폭 확충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 선다형 문항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 그리고 면접법이나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필요하다.

(2) 평가 결과는 학습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학습자, 교사, 학부모, 행정가에게 알려 주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여러 교육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준별 교육 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경우, 평가 결과는 수준별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Ⅳ. 수행평가의 현장 적용 사례

6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수행평가는 7차 교육과정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즉, 결과 중심의 지필평가로부터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의욕 등 정의적 영역이나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야말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 문제일 것이다. 교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수행평가가 ‘조사해 오기’식의 숙제 위주로 흐르는 것도 문제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현재 상주여고 학생들에게 실시한 수행평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수행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면서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주공업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국어 수업을 하면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뿐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단원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고등학교 국어 상)

(1) 대상 : 상주여고 1학년 학생 각반 30명\*7개반

(2) 단원 개관

이단원은 읽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서는 읽기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생각해 보고 읽기에서 자기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며, 실제로 자기 점검을 하여 읽어보도록 한다.

‘그 여자네 집’에서는 작품 읽기를 통해 문학 읽기와 상상의 즐거움, 깨달음의 보람을 느끼고 정서를 체험하며, 문학 읽기의 의미를 알도록 한다.

(3) 단원 학습 목표

1)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읽는 태도를 지닌다.

2)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및 수업 전략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서는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읽었는지,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하여 모둠별 퀴즈 문제를 제시하여 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토론을 통하여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퀴즈 문제에는 단원 학습 목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수학능력시험과도 연계하여 지도하되, 국어과 7차교육과정 및 단원 학습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 여자네 집’에서는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알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차시에는 모듈별 릴레이 줄거리 쓰기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은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작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3차시에는 모듈별 퀴즈를 통해 학습할 주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익히고 표현해 보도록 한다.

준비 학습과 보충·심화 학습은 단원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 개의 소단원 학습과 긴밀히 연관되도록 한다. 따라서 준비 학습에서는 ‘모듈별 소설 이야기 대회’로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보충·심화 학습을 통해서도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본 단원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동시에 좀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재를 이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에 학습할 3과 ‘다양한 표현과 이해’와 자연스럽게 연관시킨다.(매체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연극 공연 비디오 테이프)

#### (5) 수업 중 수행평가의 실제

##### 1) 1차시 : 준비 학습 - 모듈별 소설 이야기 대회

가) 절차 : ①중학교 때 배운 소설중 하나를 골라 줄거리를 생각해 보고, 작품에서 일어난 사건은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인지, 그 작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 작품은 어떤 면에서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주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오게 한다.<sup>24)</sup> ②모듈별로 앉아 각자 조사해 온 바를 이야기하고, 발표자를 뽑게 한다. ③각 모듈별로 대표 학생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sup>25)</sup>

나) 어떻게 평가하는가 : 모듈별 발표 내용, 모듈 구성원들의 토론 참여도, 다른 모듈 발표에 대한 태도 등을 합산하여 5, 4, 3, 2, 1점을 주고 점수 누가 기록장에 기록한다. 모듈 구성원끼리의 점수는 같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한 시간당 1점에 한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참여 태도가 나쁜 학생(혼자서 모듈을 이탈하는 경우나 다른 모듈의 발표를 심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점씩 감점할 수 있다.

다) 수업의 효과 : 모듈별 토론 시간에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일을 매우 즐거워하였다. 5-6명으로 모듈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발표를 꺼리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말 듣기 또한 옛날이야기 듣듯 즐거워했다. 모듈별 발표자를 뽑아 발표할 때 학생들은 같은 소설을 놓고도 줄거리나 느낌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수업이 계속되면 학생들이 문학을 보는 안목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 소모임 토론을 다시 전체 대표 토론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법은 학생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남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듯하다.

라) 보완할 점 : 이 수업에서는 크게 보완할 점을 찾지 못했다. 교사는 수업을 주도하고 진행시킨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발표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관람자의 입장이 되어 동참할 수 있었다.

24) 이 과제는 교과서 12, 13쪽에 나오는 준비 학습 문제를 활용하였다. 집에서 생각해 오게 할 경우 그냥 오는 학생도 있으므로 과제장에 적어 오게 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학생에 따라서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소설 중 자기가 감명깊게 읽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는 허용하였다.

25) 학생들이 자기 모듈의 좀더 나은 발표를 위해 다른 모듈의 발표를 듣지 않고 자기 모듈 발표 준비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듈별로 토론할 때나 모듈 대표가 발표할 때 교사는 각 모듈의 토론 참여도, 토론 참여 태도, 다른 모듈 발표를 듣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사전 예고해야 한다.

2) 2차시 -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을 읽고 모둠 퀴즈에 답하기

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 이 소단원은 비문학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교과서상에 명시된 학습 목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기’이다. 따라서 ‘즐겁게 읽기’보다는 ‘바르게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었다.

나) 절차 : ①모둠별로 앉아 책을 읽으면서 교사가 나누어 준 과제(‘모둠퀴즈’)에 대한 답을 토론을 통해 적는다. ②모둠별 발표자가 각 모듬의 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다) 내용 : 교사가 직접 만든 모듬별 퀴즈 문제는 다음과 같다.<sup>26)</sup>

<과제 1> 퀴즈 풀이

(1-2) 형식단락 ①, ②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어떤 사실이 나타나는가?

2. 이 사실에 대해 지은이가 생각(우려)하는 바는?

(3-6) 형식단락 ③-④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3. 영국계 미국인들은 어떤 주제(문제)로 토론하였는가?

4.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5. 4의 이유(영국계 미국인들이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나오는 영국의 새를 미국 땅에 풀어놓은)는?

6. 유럽산 찌르레기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언어생활에 비긴다면 어떤 현상일까?

(7-9) 형식단락 ⑤-⑦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7. ‘유럽산 찌르레기’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찾아보자.

8. 이것들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9.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10) 형식단락 ⑧-⑨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0. 이 글의 제목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인 이유를, 주제와 연관지어 말해 보자.

<과제 2> 필자가 ‘우리말’과 ‘영어’를 비유한 예들을 다음 항목에 따라 나누어 보고 그 근거를 설명해 보자<sup>27)</sup>(유럽산 찌르레기, 참새,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블루길, 붕어)

우리말 :

영어 :

<과제 3> 토론하기

1. 영어 공용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2. 모듬 구성원들의 생각은?(토론 과정을 쓰세요)

라) 어떻게 평가했는가 : 1차시의 경우와 같다.

마) 수업의 효과 :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읽었으며, 읽는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퀴즈를 함께 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에 정확하게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sup>28)</sup>

26) 이 문제지는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위 학습 목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요시하는 사실적 사고 영역과 추리 상상적 사고 영역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굳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글을 올바르게 읽고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며 하나의 상황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국어과 학습 목표에 부합한다.

27) 교과서 18쪽의 학습활동-혼자하기 1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8) 교사는 각 모듬을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모듬에 가서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토의에 잠시 참여한다. 학생들이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 생각의 방향을 끌어낼 수 있는 발문을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바) 보완할 점 : 중학교 때까지 주입식 교육에 길들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 생각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특히 <과제 2>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답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학생들은 매우 어렵게 여겼으며, 심지어는 텔레비전 동물 프로그램에 나오는 동물까지 생각해내며 엉뚱한 방향으로 매우 심각하게 토론을 이끌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교사의 적당한 개입이 필요했으나, 교사가 직접 답을 말하거나 “틀렸다” 등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모둠 학생들은 지나치게 보고서 제출에만 신경을 써서 토론은 하지도 않고 기재부터 하기도 했다. 이런 모둠에 대해서는 토론 보고서 내용보다 토론 과정을 적극적으로 채점한다는 기준을 되새겨 주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과제를 어려워해서 채점 끝났는데 종이 울려 쉬는 시간까지 토론이 진행되거나 모둠 대표 발표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첫 반에서 한 실패를 토대로 다음 반에서는 하는 수 없이 한 시간에 끝내기로 한 원래의 계획을 깨고 <과제 3> 해결과 전체 발표는 다음 차시로 넘겨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모둠별로, 학반별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어서 교사가 계획한 대로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좀더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 3) 3차시 - ‘그 여자네 집’을 즐겁게 읽기<sup>29)</sup>

필자가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교과서를 뒤적거리다가 ‘그 여자네 집’을 읽은 적이 있다. 교과서의 삽화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인지 이 작품을 읽는 즐거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수업 시간 한 시간 내내 아예 학생들에게 ‘그 여자네 집’을 읽게 해 보았다. 과제로 읽어 오라고 하는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봄날 창문을 열어 놓고 바깥 경치와 비슷한 경치가 그려진 아름다운 책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읽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기분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에서 되도록 소설의 전작(全作)을 읽는 이유 중 하나도 온전한 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맛을 한껏 더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 시간 동안 작품을 즐겁게 읽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5분을 남겨 글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아주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이 자유로운 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학생들이 쓴 기록은 과제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굳이 그 시간에 공책 검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었다.

### 4) 4차시 - 줄거리 릴레이

가) 절차 : ①모둠별로 앉아 먼저 기록자를 정한다. ②한 명씩 돌아가면서, 줄거리를 한 줄씩 말한다. ③이와 같은 일을 소설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여 완성한다. ④한 명씩이 소설을 읽은 느낌을 이야기한다. ⑤모둠 발표자가 일어나 자기 모둠의 결과물을 발표한다.

나) 어떻게 평가했는가 : 주로 토론 참여도와 다른 모둠 발표에 대한 태도 등을 합산하여 채점했다. 채점 기준 및 가·감점 기준은 앞과 같다.

다) 수업의 효과 : 여학생들은 모여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 수업 시간에 모여 하나의 주제를 놓고 수다를 떠는 일은 이들에게 꽤 즐거운 일이다. 그 수다의 대상이 교과서라도 좋다.

이럴 경우 대부분 학생들은 답에 근접해 가며, 이 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준다.

29) 여기서부터 사실상 수업에서는 한 차시씩 미루어졌다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줄거리를 말하고 혹은 다른 학생이 그냥 넘어가거나 순서를 바꾼 사건에 대해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설의 짜임이나 주인공의 심리 상태 등에 접근해 간다. 또한 다른 모둠의 줄거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면서, 똑같은 소설이 다른 모둠에서 달리 해석되는 모습을 즐긴다. 지난 시간에 했던 ‘혼자만의 감상’과는 또 다른, ‘소설 감상의 맛’을 느끼는 것이다.

라) 보완할 점 :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감상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러한 공동 재창작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수업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교과서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해석하며 정독하게 하는 시간을 쪼개어 이런 수업을 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1과 전체를 학습하는 데 처음 예상했던 8차시보다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보충 학습’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보충 학습에는 앞 차시의 수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 5) 5차시 - 노래와 그림, 두 개의 과제

##### 가) 방법 및 내용

<과제 1> 시 ‘그 여자네 집’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모둠별로 그리기

<과제 2> 32-34쪽을 읽고, 과제 해결하기 : 만득이는 이 당시 문학소년(청년)이었다. 이 때의 만득이라면 다음 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움직일 수 없었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  
왜 너를 이제야 만난 건지 하필 내 동생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된 너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찾던 꿈의 이상형을 난 이제 보고 말았어 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  
아냐 만족해. 안 돼. 모든 순간 그 널 보는 게 내겐 악몽일 거야.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걸. 내겐 첫사랑인 걸  
시간을 돌리고 싶어. 단 며칠만이라도

나) 출제 개요 : <과제 1>의 경우 교과서 삽화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읽고 가장 그리고 싶은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포착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재창작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sup>30)</sup> <과제 2>의 경우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소재로 하여 만득이의 문학적 경향과 성격을 파악하여 재창작하는 문제이다.

다) 어떻게 평가했는가 : 만득이의 문학적 경향과 만득이가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법(비유, 영탄 등)이 잘 드러난 모둠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다. 채점 기준 및 가·감점 기준은 앞과 같다.

라) 수업의 효과 : 학생들이 즐겁고 쉬운 방법으로 문학을 감상하고 재창작하게 하였다. 처음에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인기 가수의 노래를 패러디하는 일을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곧 재미있어했고, 이 일에 몰두하면서 작품의 문학적 의미에, 그리고 만득이의 문학적 경향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마) 보완할 점 : 몇 반 수업을 하고 나머지 반 수업을 할 때 <과제 1>을 수행함에 있어

30) 이는 국어과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재창작의 과정이며, 주어진 글에 나타난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가를 묻는 문제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유사 문제가 몇 차례 출제된 바 있다.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한 그림을 그리는 모둠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 여자네 집’을 그리는 데 한쪽 모퉁이에 이를 지켜보는 한 소년을 더 첨가해 넣는다는가, 나무 위에 올라가 이 집을 내려다보는 사내아이를 그려 넣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교사는 종종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 같다. 때로는 내 수업에서 부족한 점을 아이들이 채워주기도 한다. 아이들의 이런 발전적인 모습은 즉시 다음 반 수업에 반영하여 그냥 ‘그리기’에서 ‘자기의 느낌을 넣어 재해석하여 그리기’ 등으로 보완하였다.

6) 6차시 - 모둠 퀴즈 풀기

가) 방법 : 모둠별로 주어진 퀴즈에 답하기<sup>31)</sup>

나) 내용 :

1. 이 글은 사실의 기록일까, 소설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이유)는?
2.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는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작가와는 어떤 관계일까?  
<23-26쪽을 읽고>
3. 곱단이와 만득이는 각각 마을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이들을 표현하는 말을 본문 중에서 있는 대로 찾아보자.
4. 마을 사람들은 곱단이와 만득이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했는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26-28쪽을 읽고>
5. 곱단이가 만득이를 좋아하는 증거가 될 만한 징후, 또는 사건을 찾아보자.  
<29-32:5를 읽고>
6. 아름다운 정경 묘사나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보자.  
<35-37쪽을 읽고>
7. 만득이가 곱단이와 결혼을 하지 않은 까닭을 두 가지 이상 써 보자.  
<38-40쪽을 읽고>
8. 곱단이가 결혼 전날 밤 만득이에게 편지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41-48쪽을 읽고>
9. 41쪽에서 만득이가 발바닥을 맞으며 운 이유와 45쪽에서 만득이가 신의주 땅을 보며 운 이유를 비교하여 써 보자.
10. 순애에게 위로와 충고의 말을 해 보자.
11. 결혼 후의 만득이가 순애에 대해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만득이가 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12. 만득이가 느낀 ‘한’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보자.
13. 결국 이 글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 어떻게 평가했는가 : 소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인물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모둠 토의 참여도는 적극적이며 다른 모둠의 발표에 경청하는가를 합산하여 채점한다. 채점 기준 및 가·감점 기준은 앞과 같다.

라) 수업의 효과 :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읽었으며, 퀴즈를 함께 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에 정확하게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마) 보완할 점 : 고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아직 적용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

31) 수업 취지와 방법은 2차시의 것과 같다

면 반 학생들은 이 과제를 몹시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평소에 토론 분위기가 활성화된 반에서는 쉽게 과제가 해결<sup>32)</sup>된 반면 평소에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의 반에서는 다른 반보다 시간이 1.5배 가량 걸렸다.

#### 7) 7차시 - 보충·심화 학습

가) 방법 및 절차 : 보충 학습은 ‘잊지 못할 운동주’인데 학생들에게 읽기 과제로 제시하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 문제를 풀어오도록 과제로 제시하였다.<sup>33)</sup> 심화 학습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데 다음 차시에 학습할 3. ‘다양한 표현과 이해’와 관련시키기 위하여<sup>34)</sup> 준비된 연극 공연 비디오를 감상하게 한 다음 소설과 연극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 ①교과서에 실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는다. ②‘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연극 공연 비디오를 본다. ③다음 과제에 답한다.)

나) 구체적 내용 : 심화학습의 경우

1.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정리해 보고, 이후 주인공이 취할 행동을 상상해 보자.
2. 자신이 만일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상상하여 글로 써 보자.
3. 이 작품이 우리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문학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sup>35)</sup>
4. 소설로 읽었을 때와 연극 공연 비디오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과제장에 제 때에 기입하는가,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문학 작품으로서 이 작품이 주는 효과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연극으로서의 이 작품과 소설로서의 이 작품의 차이점을 이해했는가 등의 기준에 따라 5, 4, 3, 2, 1점으로 채점한다.

## 2. 단원 3. 다양한 표현과 이해(고등학교 국어 상)

(1) 대상 : 상주여고 1학년 학생 각반 30명\*7개반

(2)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익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재에 드러난 언어 외적 표현(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반언어적 표현)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봄 봄’에서는 언어 외적 표현의 개념, 역할, 종류와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의 개념, 역할 종류 등을 파악하도록 하며,

32)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1학년 6반은 입학 초부터 토론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매우 즐거워하며, 또한 과제 해결력 또한 남다르다. 토론 수업은 반별 우열의 격차를 보이는데, 아마 모든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 적응해 갈 무렵이면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33) 교과서 55쪽, 혼자하기1,2, 함께하기3번 문항 활용

34) 사정상 상주여고 1학년 국어는 두 교사가 맡고 있는데 필자가 맡은 단원은 홀수 단원이라 1과 다음에 바로 3과로 나간다.

35) 여기까지는 교과서 61쪽 혼자하기 1,2와 함께하기3번 문항을 활용하였음



‘봉산 탈출’에서는 장면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에 담긴 의미 및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3) 단원 학습 목표

- 1) 장면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됨을 안다.
- 2)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 3)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및 수업 전략

이 단원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지식 전달식 수업보다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유의한다.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백 번 듣고 보는 것보다 한번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봄 봄’에서는 우선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의 한 장면을 선정,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은 연극으로 나타내 보도록 한다.(갓추어진 연극 형태가 아니라 입체낭독 형식에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도로) 또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제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단원에서도 모둠 퀴즈를 병행한다.

‘봉산 탈출’에서는 담화에서의 장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심리적 태도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을 알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극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봉산탈출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나타내 보도록 한다. 이미 입체낭독 형태의 작은 연극하기는 ‘봄 봄’을 통해 경험한 학생들이므로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하여 “‘봉산 탈출’을 현대식으로 패러디하여 공연하기”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보충·심화 학습 시간을 통해 교과서에 나온 제재를 간단히 학습하는 대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담아 짧은 희곡을 써 보게 한다. 이는 ‘봄 봄’에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반한 입체낭독(아주 간단한 연극하기)→‘봉산 탈출’에서 주어진 제재를 현대식으로 패러디하여 공연하기에 이어 본 단원 제재를 좀더 확장, 심화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준비 학습은 따로 하지 않고 ‘봄 봄’의 입체낭독 수업을 할 때 간단히 병행하고자 한다.

(5) 수업 중 수행평가의 실제

1) 1차시 : 읽기

가) 방법 : ①교과서 104-105쪽에 나오는 ‘읽기 전에’를 읽고, 인물들의 생김생김이나 표정을 보며 성격을 짐작해 본다. ②즐겁게 읽는다.(삽화를 잘 보며 장면을 상상해 보고 인물들의 표정도 상상해 본다.) ③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나 특이한 말들은 교과서 가장자리에 있는 풀이를 참고해서 읽도록 한다. ④이 글은 표현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한다.<sup>36)</sup>

2) 2차시 : 모둠별로 간단한 연극하기(입체낭독식의)

가) 절차 : ①모듬끼리 모여 가장 재미있는 부분, 자기가 표현해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②한 장면을 택하여 서로 역할을 바꿔 가며 인물의 대사를 해 보도록 한다. 이 때 대사를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과 상황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

36) 앞 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도록 한다. ③자기가 한 표현과 다른 친구가 한 표현을 비교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한두 장면으로 구성된 간단한 연극(입체낭독)을 준비하도록 한다. ④ 한 모듬씩 나와서 발표하도록 한다.

나) 어떻게 평가하는가 : 어느 모듬 학생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냐보다는 어느 모듬에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고 노력했느냐를 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역시 이 활동도 5, 4, 3, 2, 1의 점수로 나타낸다. 우열을 크게 가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모두 좋은 점수를 주었다.

다) 수업의 효과 : 모처럼 야외 수업을 해 보았다. 학교 옆에 마침 좋은 나무그늘과 잔디밭이 있어서 야외수업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식의 신체를 움직이는 수업은 교실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 탁 트인 공간에 나옴으로써 학생들은 일단 긴장을 풀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물의 성격을 더 잘 파악했으며, 언어 이외의 방법(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의사 전달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본 제재의 내용과 표현이 훨씬 흥미 있게 다가왔다고 대답했다.

라) 보완할 점 : 야외 수업이니만큼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교실에서 보다는 학생들 관리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평소에 학생들이 모듬 활동이나 토론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 특별히 야외수업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야외의 분위기와 소설의 배경, 계절 등이 어우러져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

### 3) 3차시 - 모듬 퀴즈(교사가 나누어 준 과제물 해결하기)

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 교과서상에 명시된 학습 목표는 ‘언어 외적 표현과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말하기와 듣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다’이지만 이미 전시에 여기에 대한 수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학 작품으로서 이 소설이 갖는 특징, 특히 김유정 특유의 표현상의 특징과 이 소설만의 구성상의 특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듬별 퀴즈 문항을 만들었다.

나) 절차 : ①모듬별로 앉아 책을 읽으면서 교사가 나누어 준 과제(‘모듬퀴즈’)에 대한 답을 토론을 통해 적는다. ②모듬별 발표자가 각 모듬의 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다) 내용 : 교사가 직접 만든 모듬별 퀴즈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 글이 웃음을 주는 이유를 써 보자.(세 가지 이상)
2. 이 글의 구성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일반적 구성에서 벗어나 결말 다음에 절정이 나와 있다. 작가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의도)는 무엇일까?
3. 인물들의 속마음을 써 보자.(서로에게)  
장인→나  
나→장인  
점순이→나  
나→점순이  
장인→점순이  
점순이→장인
4. 각 인물들에게 한 마디

‘나’에게  
점순이에게  
봉필(장인)에게

5. 이 소설의 끝 부분 이어가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 수업의 효과 : 이 짧은 몇 개의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토론을 하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즐겁고 쉽게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상황을 이해했다. 특히 5번 과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시되는 재창작의 과정으로, 학생들이 이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재는 잣대가 되었다. 학생 작품 하나를 참고로 제시한다.

<학생 작품 예시 : 1-6 비틀즈 모듬 신소리, 김혜영, 김유진, 곽혜은, 최동희>

(앞부분 생략)... 그러던 어느 날,

“아이구 영감!”

빙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어, 어무이, 정신차리이쇼.”

“어이? 정신차리라, 야야. ... 아무도 없나?”

나는 어찌된 영문인가 모르고 달려왔다가 타박만 들은 채 찬물을 나르고 방의 군불을 지피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중략)... 나는 갑자기 벌어진 이 모든 사태에 당황했지만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에는 아주 경악을 해 버렸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들켜버렸어요... 흑...”

아니, 이젠 무슨 소린가?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위해 점순이가 꾀를 써서 ‘임신’이라는 거짓 말을 한 것이다.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드디어 성례를 올렸다. 무려 3년 하고도 7개월만의 성과였다.

아직도 장인, 아니 빙장어른은 이미 한 성례를 깰 수도 없고 나만 보면 으르렁대며 욕설을 퍼붓지만 그 때마다 점순이는 밥에 돌을 넣거나 불을 빼버리곤 해서 지금은 잠잠한 편이다.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하다. ^\_\_\_\_\_^

4) 4차시, 5차시 : ‘봉산 탈춤’을 패러디하여 연극으로 만들기

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 ‘봉산 탈춤’에서는 담화에서의 장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심리적 태도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을 알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4, 5차시에는 “봉산 탈춤 패러디하여 공연하기”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 절차 및 방법 : <4차시> ①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읽는다. ②이 글에서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본다. ③각 인물의 표현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④몇 개의장면을 골라 입체낭독해 본다. ⑤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 현대사회에 맞게 패러디한다. <5차시> ⑥패러디한 대본을 가지고 소리 내어 읽어 본다. ⑦이 때 인물의 성격, 상황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쓴다. ⑧ 한 모듬씩 돌아가며 공연한다. ⑨소감을 서로 이야기한다.

다) 수업의 효과 : ①학생들은 패러디 활동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나 원작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②연극이라는 장르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섞어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③자칫하면 고루하

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제재에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즐겁게 접근할 수 있었다.

라) 보완할 점 : 장소 문제가 가장 불편했다. 공연이 있는 5차시의 경우 교실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이 적합하지만 비가 와서 야외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이 극에 몰두하다 보니 수업이 소란스러워져 다른 반의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 5) 6-8차시 : ‘요즘의 나의 생활’을 주제로 희곡 써서 공연하기

가) 수업의 취지 :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단원의 심화 학습으로는 학생들이 간단한 희곡을 직접 쓰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봄 봄’에서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반한 입체낭독(아주 간단한 연극하기)→‘봉산 탈춤’에서 주어진 제재를 현대식으로 패러디하여 공연하기에 이어 본 단원 제재를 좀더 확장, 심화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희곡을 쓰는 일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낸시 킹의 창의적 연극 이론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쉬운 방법으로 희곡 쓰기를 경험함으로써 창작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 나) 방법 및 절차

낸시킹의 “문자언어 탐구하기” 모형 중 ‘희곡 쓰기’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초기 탐구 : 주요 인물 정하기<중략>
- ② 두 번째 탐구 : 등장인물과 플롯 발달시키기<중략>
- ③ 세 번째 탐구 : 희곡에서의 사건 만들기<중략>
- ④ 네 번째 탐구 : 위기 장면 만들기<중략>
- ⑤ 다섯 번째 탐구 : 절정 장면 만들기<중략>
- ⑥ 여섯 번째 탐구 : 짧은 극본 쓰기<중략>

위와 같은 검토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수업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 <1단계> 희곡 쓰기 단계(6차시)

- ㉠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주제에 접근해 가기<sup>37)</sup>
- ㉡ 주요 인물 정하기<sup>38)</sup>
- ㉢ 등장인물과 플롯 발달시키기<sup>39)</sup>
- ㉣ 희곡에서의 사건 만들기<sup>40)</sup>

37) · 돌아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나는 \_\_\_를 좋아해.”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나는 요즘 \_\_\_을 제일 많이 해.”, “나는 학교에서 주로 \_\_\_을 해.”, “나는 수업을 마치면 주로 \_\_\_을 해.”, “나는 요즘 \_\_\_ 때문에 고민이야.”, “요즘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_\_\_이야.”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꿈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메모해 두도록 한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만들 연극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 몇 개의 주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나 주변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적당한 주제를 잡도록 한다.

38) · 자신이 선택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단어들 몇 개 쓰기 ·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의문 나는 점 질문하기 · 이야기의 시작 부분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선택한 등장인물이 하는 독백을 상상하여 쓰거나 말해 보기 · 자신이 쓴 독백을 짝에게 읽어주기 · 질문하기 · 자신의 독백을 쓰고 읽은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39) · 처음 만난 두 인물과 그 관계에 대한 이미지 조각하기 · 자신이 만든 조각을 바탕으로 짧은 장면 쓰거나 말하기

40) ·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에 대한 이미지 그리기 · 사람 수를 늘려서 관계를 조금씩 복잡하게 만들기 · 최대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짙막한 장면 만들기

㉞ 위기 장면 만들기<sup>41)</sup>

㉟ 절정 장면 만들기<sup>42)</sup>

㊱ 극본 완성하기<sup>43)</sup>

<2단계> 공연하기 단계(7차시)

㉲ 대본 함께 읽기<sup>44)</sup>

㉳ 대강의 동작선 짜기<sup>45)</sup>

㉴ 무대 연습<sup>46)</sup>

㉵ 공연<sup>47)</sup>

<3단계> 공연 후 단계(8차시)

① 연극을 만든 소감 이야기하기

② 다른 모듬의 연극을 본 소감 말하기 및 질의 응답: 각 모듬에 대한 지정 토론 모듬을 두어 공연이 끝나고 서로 질의, 응답하도록 한다. 1모듬의 공연에 대해서는 2모듬이, 2모듬의 공연에 대해서는 3모듬이 질의하는 식으로 한다.<sup>48)</sup>

③ 자기 모듬의 희곡과 연극에 대한 자체 평가

④ 다른 모듬의 연극에 대한 평가표 작성하기

다) 수업의 효과 :

라) 보완할 점 :

(이 부분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으므로 수업 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41) · 이야기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하게 느껴지는 위기 장면에 대한 이미지 조각하기 · 자기 마음대로 위기 상황 만들기<중략>

42) · 절정(플롯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대한 이미지 그리기 · 플롯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의 장면 써 보기<중략>

43) · 자신의 극본 안에 넣기 원하는 모든 장면의 이미지 그려 보기 · 각각의 이미지에 관해 쓰기 · 극본 쓰기<중략>

44) 대본을 계속 큰 소리로 돌려 읽으면서 인물의 감정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 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5) 여기서는 동작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지양하고 무대에 선 학생들이 관객을 향해 앞이 보이게 서도록 노력할 것과 한 사람의 뒤에 다른 사람이 서서 보이지 않는 일을 막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만 지도한다.

46)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보도록 한다.

47) 학생들이 그 동안 만든 창의적 연극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선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또한 다른 모듬의 공연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48) 지정토론은 상대방의 연기에 대한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상대방의 연극에 대해 궁금한 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점 등을 관객의 입장에서 질의하도록 주의시킨다. 또한 답변하는 모듬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성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도 선생님도 즐거운 국어 수업

영주제일고등학교(영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노정  
nojeong\_kr@hanmail.net

## 1. 영주공고에서의 첫 1년 - 실업계 국어수업 현장

영주공고에 부임한 지 벌써 4이 되었다.(지금은 ‘영주제일고’로 바뀌어 1학년은 인문계이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은 2, 3학년들로 실업계이다.) 지금은 학생들과 말도 참 잘 통하고 공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기만 하지만 첫 1년 동안은 실패를 거듭했었다. 가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영주공고 부임 첫 해의 나처럼 아직도 많은 실업계고 선생님들이 수업다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영주공고에서의 소중한 내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한다.

처음에 나는 보충수업도 입시 부담도 없는 실업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연극 동아리 하나 만들고 공부도 많이 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당찬 욕심으로 공고에 자원했다. 그 때는 아마 공고에 오면 시간이 많이 생길 줄로 착각했던 것 같다. 인문계 여고에만 있던 내가 자원해서 공고에 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몹시 딱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수업 할 생각은 아예 말라”며 말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무리 공고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 하지만 다 교사가 하기 나름이겠지 하며 열심히 첫 수업을 준비해 기쁜 마음으로 영주공고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말리던 선생님들 이야기가 옳았다. 첫 수업을 나는 완전히 망쳤다. 아이들은 도무지 앞을 봐 주지 않았다. 문소리가 나고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면 앞을 좀 봐줄 법도 한데 이 아이들에게 나는 ‘단잠을 깨우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첫 만남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소개 프로그램이며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머쓱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했다.

다음 시간에 나는 단단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갔지만 아이들의 무관심은 마찬가지였다. 자는 아이, 떠드는 아이, 아예 만화책을 보는 아이, 수업시간에 화장을 고치는 아이... 이 대책 없는 아이들과 계속 싸웠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 강압적으로 책을 가져오게 하고 앞을 보게 할 수는 있었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수업에 참여시킬 수는 없었다. 날마다 패배였다. 다행히 연극반을 만들어 그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고, 이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인지 수업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의욕도 없는 아이들을 닮아 점점 의욕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국어교사로서의 내 능력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학교에 가기 싫어지더니 결국은 교직에 대한 회의까지 생겼다. 우울증이 생기고, 살기도 싫어졌다. 영주공고 부임 첫 해에 내가 한 것은 연극동아리를 만들어 연극공연을 하고 동아리를 키운 것과 1년 내내 수업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 것, 두 가지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한 해는 피로웠지만 결코 헛된 해가 아니었다. **실패한 경험 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무렵에 나는 내 실패의 원인을 꼼꼼이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다.

무엇보다 큰 원인은 바로 학생들과 내가 서로 걸돌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주 많이 노력했는데도 말이다. 생각해 보니 나는 연극반 아이들 이외의 아이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했고, 아이들과 깊이 있게 가까워질 기회도 없었다. 이 학교는 ‘생활지도’를 위해서 과별로 담임을 배정한다. 전기과 담임은 전기과 선생님이, 기계과 담임은 기계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담임을 배정하다 보니 학생들은 자기과 선생님 이외의 선생님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고 수업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아이들과 진짜로 가까워지려면 학급 담임이 되어 직접 부딪쳐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담임을 시켜달라고 졸랐다. 보통과(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보통과’라고 한다.) 선생, 그것도 자그마한 여선생이 감히 담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례에는 없던 일이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지만 나는 끈질기게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다. 내 고집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나는 결국 토목과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예상외로 조그만 여선생과 선생보다 훨씬 큰 머슴애들이 멋진 학급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 교장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3년 내내 담임하도록 아예 내게 맡겼다.

학급 담임을 하면서부터 나는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관찰자’로서의 공고 선생이 아니라 아이들과 서로 뒹굴고 싸우며 함께하는 ‘주인공’으로서의 공고 선생이 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본 영주공고 학생들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 II. 내가 본 영주공고 학생들의 실태와 부임 첫 해의 나의 문제점

### 1. 영주공고 학생들의 실태

① 정상적인 가정에서 곱게 자라나고 있지 못한 아이가 1/3이 넘는다.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별로 없다.

② 밤이 되어도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없다 보니 이 아이들은 당연히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오는 일에도 집에서 공부를 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③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즐거운 기억도 기대도 없다. 중학교까지 이 아이들은 반에서 꼴찌를 달리거나 그 근방에서 돌던 아이들이었다. 선생님에게 다정하게 이름 불린 기억도, 교무실에 놀러가 선생님하고 얘기해 본 기억도 거의 없는 아이들이었다. 교무실은 사고쳐서 혼나러 가는 곳, 선생님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어른’ 중 하나다.

④ 이러다 보니 아이들의 기초 학력은 몹시 떨어진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영수 수준은 중학교 1학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학력이 떨어지는 토목과 아이들의 국어 어휘력이나 독해력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우리 반에는 중학교 때 특수반에 있었던 아이들이 대여섯 명 된다.)

⑤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 술, 여자, 그리고 오락(컴퓨터게임 포함)이다.

⑥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해가 진 이후이다. 학교는 잠을 보충하는 곳이다. 밤낮이 뒤바뀐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⑦ 겉보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거친 편이다. ‘힘의 논리’가 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선배, 힘센 동급생의 말을 아이들은 아주 잘 따른다. 아이들은 ‘힘 센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동경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많이 무시한다.(이것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⑧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위에서 말한 ‘힘의 논리’와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무섭지 않은’ 여선생님을 아이들은 심하게 무시한다. (집에서도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많다.)

⑨ 아이들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무엇이든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나 어려운 일에는 도전하겠다는 마음보다 피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⑩ 많은 아이들이, 심하게 표현하면 “하루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꿈이나 의욕이나 인생에 대한 설계 없이 순간적인 즐거움에 얽매어 살고 있다.

⑪ 이 아이들의 장점은 단순하지만 정이 많고 친구를 몹시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정과 의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때로는 ‘우정’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여 함께 사고를 치거나 가출한 친구를 끝까지 숨겨주는 일도 있지만, 아이들이 우정을 소중히 하는 점은 분명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실업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영주공고 아이들의 실태와 나의 실패 경험을 중심으로 -

① 일단은 아이들과의 ‘기(氣)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시간은 그냥 놓고 자는 시간이다. ‘기싸움’이라 해서 학생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수업에 대한 분명한 선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첫 한 달 동안,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지면 1년 동안의 수업은 힘들어진다. 이 기간에 교사는 수업에 대한 분명한 선을 정해야 한다. 허용할 것은 아이들 말대로 ‘화끈하게’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나의 경우, 국어시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 선생님의 허락없이 엎드려 잠을 자는 것과 책·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오는 것

해도 되는 것 : 정말로 아파서 허락을 받고 엎드리는 것, 솔직하게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셨다고 고백하고 한 시간 자는 것, 양호실이나 화장실 가는 것-언제든지 이야기만 하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수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복장, 머리모양 등에 대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첫 수업에서 학생들과 내가 함께 만든 규칙으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② 단호하기만 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르지는 않는다. 교사와 학생 서로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는 교사의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무서울 땐 무섭지만 나를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선생님’을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가장 따른다. 무섭기만 한 선생님에 대해 학생들은 눈치를 보고 피하고 속일 뿐이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과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그러려면 일단은 아이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③ 나는 수업에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다. 아이들과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서로 사용하는 “채널”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교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허공만 맴돌 뿐이다.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맞은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인문계 아이들을 가르치던 방식에서 난이도를 좀 낮추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인문계 학교에서 쌓았던 모든 노하우에 대한 미련은 끊어야 한다. 그것들은 단지 참고 자료



만 될 뿐이다.

④ 언어 사용도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의 80% 이상이 속어나 비어이다. 길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고상한 말, 비유적인 말, 길고 교훈적인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설명은 쉽고 단순하게, 금지하거나 꾸중하는 말은 짧고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 칭찬은 부드럽고 길어도 좋다.

⑤ 이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나 수업 중 자기 이름이 불리면 달라진다. 작은 관심에도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의욕을 갖는다. 때론 단호하게, 때론 친절하게 개별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수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 전체적인 질문은 별 효과가 없다. 극히 일부 아이들만 관심을 가질 뿐.

⑥ 교사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학습의욕과 능력 결손이 누적되어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이 실력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동정도 무시도 해서 안 된다. 교사가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고 아이들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이들의 질문 하나, 대답 하나에도 감탄하고 기뻐하게 된다. 아이들 역시 선생님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부담감을 없애게 된다. 당연히 교사도 학생도 수업이 즐거워진다.

⑦ ‘실업계 학교’의 교과서는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실업계 학교에 와서 처음 느꼈다. 아이들의 삶과 거리가 멀고 어렵기만 한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친다면 수업이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당장 집에 가면 끼니를 걱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학문의 즐거움’이나 ‘독서와 인생’이라는 말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유산가’와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대신 ‘아버지의 마음(김현승)’, ‘종아리를 때리면서()’ 등을 가지고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은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경건할 정도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제를 대할 때 이것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가능하다면 국어교사끼리 모여 그 학교만의 교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나는 올해-2001년- 국어 수업과 작문 수업에 아이들이 만든 학급문집을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수업을 했다. 케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때부터 수업은 잘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뻑뻑하게 진행되는 국어수업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수업에 잘 따라오고 가끔씩은 “참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다가가면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편한 선생님이 되었고, “공고 아이들보다 더 공고스러운”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이런 “공고선생님” 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공고와 공고 아이들이 좋다.

### III. 아이들과 함께 한 국어수업 - 수행평가

#### 1. 수행평가는 수업중에 행해져야 한다. - 수업과 놀이와 평가를 병행하는 국어시간

내가 국어수업에 성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수업과 수행평가를 따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1년내내 수업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하나 기록한다. ‘숙제

를 위한 숙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올바른 수행평가가 아니다. 수업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귀찮고 일거리가 많지만 가장 정확하게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신장시키는 동시에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수업에서 “구경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착안한 것은 바로 수업과 놀이와 평가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행평가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거의 1년내내 수행평가에 매달려야 한다), 그 다음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효과 없이 실패하기도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 2. 수행평가의 예

### 1. 종합형 수행평가 문항<sup>49)</sup>

#### 1) ‘봉산탈춤’ 패러디하여 공연하기

(가) 단원 : 국어(상) 171쪽, ‘봉산탈춤’

(나) 대상 : 영주공고 1학년 전자계산기과 학생 43명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이를 우리 학교나 학급, 또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패러디하여 공연하기

(라) 평가 방법 : 학생들의 자체 평가와 교사 평가를 병행한다. 학생들은 모둠당 8-9명씩 5모듬으로 나누어 자신의 모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듬에 대해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네 모듬의 점수를 합하여 4로 나눈 것이 ‘학생들이 준 점수’이다. (자료1 참조)

(마) 평가상의 유의점 : 평가의 기준이 ‘완성된 연극 공연’이 아니라 학생들이 봉산탈춤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패러디하며, 서로 힘을 합쳐 연극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므로 지나치게 연극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든다.(자료1 참조)

(바) 채점 기준표 : 자료1 참조

(사) 장점 : 학생들이 이 수행평가를 통해 ‘봉산탈춤’을 좀더 잘 이해하고 교과와 단원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아) 문제점 :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 3-4차시가 소요되므로 교과진도에 쫓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선뜻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참고해서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요즘의 나의 생활’에 대해 발표, 토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대본을 써서 공연하기

(가) 단원 : 국어 (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나) 대상 : 영주공고 토목과 2학년 학생 34명\*2(2개 학반임)) 이 두 학급은 전 해에 ‘봉산탈춤 패러디 공연’ 수업을 경험하였으므로 토론연극 만들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필자 주.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요즘의 나의 생활’에 대해 발표, 토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대본을 써서 공연하기 - 이를 통해 토론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희곡이 연극으로

49) 필자 주. 종합형이라 함은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및 문학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입체화되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라) 평가 방법 : ‘봉산탈춤’의 경우와 같음

(마) 지도상의 유의점 : ‘연극’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희곡을 공동 창작하고 연극화 과정을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론의 과정, 연극화 과정에 교사가 조연자로서 적극 동참하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바) 채점 기준표 : ‘봉산탈춤의 경우와 같음

(사)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희곡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자신의 요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음.(대본 내용 - 자료2 참조)

(아) 문제점 : 시간이 많이 소요됨 (1차시-토론하기, 2차시-대본쓰기, 3차시-연습하기, 4차시-공연, 5차시-소감 이야기하기)

3) ‘뺨꾸기에 부처’를 연별로 만화로 나타내기(자료3 참조)

(가) 단원 : 국어 (상) ‘뺨꾸기에 부처’

(나) 대상 : 영주공고 화공, 토목, 전자계산기과 1학년 학생 88명(3개 학반임)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뺨꾸기에 부처’를 읽고 모듈별로 재해석하여 각 연의 내용을 만화로 나타내고 이를 전체 앞에서 설명하기

(라) 평가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에 다가가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증시하기 위해 해석의 정확성보다는 재해석과 표현의 즐거움에 평가의 기준을 두고 성의있게 참여하는 대부분의 모듈에 만점을 준다.

(마)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시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시에 대한 이해도도 커졌음

(바) 문제점 : 시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4) 김남조의 ‘설일’을 연별로 만화로 나타내기(자료4 참조)

(가) 단원 : 국어 (하) ‘설일’

(나) 대상 : 영주공고 토목과 2학년 학생 2\*34명(2개 학반임)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설일’을 읽고 혼자서, 또는 짝과 같이 이 시의 내용을 각 연의 만화로 나타내고 이를 전체 앞에서 설명하기

(라) 평가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 이미 시에 대해 공부한 바 있는 학생들이므로 이 과정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시의 내면적 의미에 어느 정도 다가가는지도 함께 평가함. 물론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에 다가가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증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마)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시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시에 대한 이해도도 커졌음

(바) 문제점 : 시의 내면적 의미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의미 해석에 그친 학생이 많았다. 예를 들면 ‘황송한 축연’을 음식이 가득 차려진 잔칫상으로 표현한 학생이 많았다.

5) 보고서 만들어 발표하기(자료5 참조)

(가) 단원 : 국어(하) 33쪽, 국어와 생활

- (나) 대상 : 영주공고 토목과 2학년 학생 34명\*2(2개 학반임)
-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방법 : 모듈별로 ①TV 광고에 나오는 우리말, 한자말, 외래어 조사하기 ②영주시내에 있는 간판을 조사하여 우리말, 한자말, 외래어로 분류하기 ③우리학교 학생들이 잘 쓰는 은어, 비어, 속어 조사하기 ④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채팅 용어, 포트리스 용어 조사하기 ⑤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 조사하기 ⑥대중가요에 나오는외국어, 외래어 조사하기, ⑦대중가요 속에 나오는 은어, 비어, 속어 조사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 발표, 토론하도록 한다. 토론을 할 때는 1모듬의 발표에 대해 2모듬이 질문, 지정토론하고, 2모듬의 발표에 대해 3모듬이 질문, 지정토론하며 남은 시간에는 모듈 구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다.
- (라) 지도상의 유의점 : ①2주 전에 미리 과제를 준다. 그리고 모듈간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준다. ②조사한 다음 반드시 자신의 소감을 쓰도록 한다. ③지정토론할 조에 미리 원고를 주어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장점 : 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실제로 우리말이 외래어, 은어, 속어, 비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이 오염되었음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은어, 비어, 속어를 발표할 때는 발표하는 학생도 듣는 학생도 얼굴을 붉히며 “우리가 쓰는 말들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잠시나마 고운말을 쓰기도 했다.
- (바) 문제점 : 교사의 사전 지도 부족 때문인지 ‘채팅용어’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국어의 오염에 대해 실감하기보다는 채팅용어에 대해 매우 신기해하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채팅용어를 사용하려는 일도 생겼다.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충분히 생각지 않을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6) 애송시집 만들기

- (가) 단원 : 국어 (상), 155쪽, 김소월의 ‘진달래꽃’
- (나) 대상 : 영주공고 전자계산기과 1학년 학생 43명
-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진달래꽃’을 공부한 후 각자 사랑이나 이별에 대한 애송시를 적어 와서 모듈별로 애송시집 만들기
- (라) 평가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자기의 애송시를 적어 온 다음 이를 A<sub>4</sub> 용지에 적고 그림을 그려 모듈별 시집 만들기. 모듈별 시집을 수합하여 학급 전체 애송시집으로 만든다.
- (마)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시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시에 대한 이해도도 커졌음
- (바) 문제점 : 어떤 시에 만점을 주어야 할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성의를 보이는 모듈 전원에 대해 만점을 줌)

#### 7) 자작시 낭송하기(자료6 참조)

- (가) 단원 : 국어 (상) ‘뽀꾸기에 부쳐’
- (나) 대상 : 영주공고 화공, 토목과 1학년 학생 45명(2개 학반임)
-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뽀꾸기에 부쳐’를 읽은 다음 자기 마음이나 생활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생활시 적어 발표하기<sup>50)</sup>
- (라) 평가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무조건 ‘멋있게 보이려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쓰거나 꾸미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쓰도록 지도함. ‘시는 무

50) 전자계산기과 학생들이 사랑과 이별의 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반면 화공과와 토목과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지 않아 생활시를 쓰기로 함.

조건 짧고 멋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사로잡혀 있으므로 맨 먼저 이런 고정관념을 교사가 깨뜨려 줄 필요가 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길지도 멋있지도 않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잘 나타낸 시’ 몇 편을 읽어 줄 경우 학생들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를 쓰게 된다.

- (마)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시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시쓰기는 너무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다소 깰 수 있었다. 특히 토목과의 경우 가장 솔직한 시, 가장 우리 마음을 잘 나타낸 시를 학생들과 함께 뽑았는데 학업 성적이 많이 뒤쳐지는 학생이 장원으로 뽑힌 이후 국어 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바) 문제점 : ‘생활시’를 쓰다 보면 시의 형식이나 미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빠뜨리게 된다.

#### 8) 봉산탈춤 뒷이야기 써서 발표하기(자료7 참조)

- (가) 단원 : 국어 (상) ‘봉산탈춤’
- (나) 대상 : 영주공고 화공, 토목과 1학년 학생 45명(2개 학반임)<sup>51)</sup>
- (다) 평가 목표 및 문항 : ‘봉산탈춤’을 읽고 말뚝이가 취발이를 도망시킨 이후의 일을 상상해서 쓴 다음 발표하게 한다.
- (라) 평가 방법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봉산탈춤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창의성을 가지고 재해석하는가에 평가의 중점을 둔다.
- (마) 장점 :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탈춤 단원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커졌음
- (바) 문제점 : 학생간의 이해도나 표현의 정도에 개인차가 너무 컸다. 기회가 된다면 이를 모둠 활용으로 다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 2. 말하기-듣기를 위주로 한 수행평가 문항

### 1) 연극 공연 비디오를 보고 주어진 문항에 답하기(자료 8 참조)

- (가) 단원 : 국어 (하) ‘언어와 문학 : 말하기-듣기’
- (나) 대상 : 영주공고 토목과 2학년 학생 68명(2개 학반임)
- (다) 평가 문항 및 방법 : 자료8 참조
- (라) 장점 : 학생들이 연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듣는 태도가 매우 진지해졌음
- (마) 문제점 : 아주 드물기는 하나 미리 작품을 소설로 읽은 학생이 있었음. 이럴 경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음

### 2) ‘은전 한 닢’의 녹음 내용을 듣고 주어진 문항에 답하기

- (가) 단원 : 국어 (상) ‘문학의 즐거움 : 말하기-듣기’
- (나) 대상 : 영주공고 화공, 토목, 전자계산기과 1학년 학생 88명(3개 학반임)
- (다) 평가 문항 및 방법 : 교과서에 나오는 ‘은전 한 닢’을 평상시에 수업하지 않고 단원 들어가기 전 말하기-듣기 단계에서 녹음하여 들려주고 주어진 문항에 답하게 하였음  
<문항 1> 이 글의 즐거움을 요약하시오.  
<문항 2> 은전 한 닢을 위해 몇 달을 희생한 거지의 태도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51) 이 단원에서 전자계산기과 학생들은 패러디연극 만들기를 한 반면 토목과 학생들과 화공과 학생들은 ‘뒷 이야기 쓰기’를 택했다. 토목과 1학년의 경우 복학생이 매우 많아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어 연극 만들기가 쉽지 않았으며, 화공과 1학년의 경우 한 반 학생이 8명으로, 한 모둠이 공연할 경우 보아 줄 사람들이 없으므로 이 방법을 택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 (라) 장점 : 제재가 재미있어 학생들이 아주 큰 흥미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각 식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듣기’ 단계까지 갈 수 있었음
- (마) 문제점 : 아주 드물기는 하나 미리 작품을 읽은 학생이 있었음. (영주공고에는 이런 학생이 거의 없지만) 다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재를 택해야겠음

#### IV 마음과 삶을 가꾼 작문 수업

올해 나는 3학년 전체 작문 수업을 하게 되었다. 작문은 1주일에 두 시간 들었는데 한 시간은 책을 배우고 한 시간은 글을 쓰기로 했다. 아이들 대부분이 글쓰기를 몹시 싫어하는 상황에서 나는 실업계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통해 마음과 삶을 가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대부분의 실업계 아이들이 6월말-7월초 쯤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고, 5월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에 전념하므로 실제로 이 아이들과 작문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석달 정도뿐이다. 이 석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수업을 하기 위해 미리 우리 아이들에게 꼭 생각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주제로 삼았다.

3월의 주제 : ①자서전 쓰기 ②내가 하고 싶은 일 ③나의 진로(지난 시간보다 구체적으로 쓰기)

4월의 주제 : ④나의 장점 ⑤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꼭 고쳐야 할 점 ⑥18년 동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되도록 가족은 제외하고)

5월의 주제 : ⑦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느낌을 아주 솔직하게 쓰기(자료를 모두에게 복사해 준다) ⑧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적거나,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은 ..... 로 산다”로 재구성하기 ⑨영주공고의 좋은 점(개요표를 짜서 글로 옮기기-개요표 양식은 미리 자료로 나누어주고, 사전에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연습한다)

6월의 주제 : ⑩영주공고를 떠나면서 ⑪그 동안 자기가 쓴 글들을 읽고 소감 쓰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취업을 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작문수업이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아주 감명깊고 즐거운,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다고 말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작문 수업에 성공한 비결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내가 아이들의 관심사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공고 선생 4년째이니 이 정도면 어떤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이다. 둘째는 날마다 백 권이 넘는 공책을 집으로 가져와서 아이들의 공책에 뽀뽀 “답장”을 썼다는 것이다.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편지하듯 글에 대한 소감과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 그랬더니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고, 2주만에 거의 전교생의 이름을 다 알게 되었다. 가장 큰 소득은 내가 이 아이들 모두를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진실한 글을 읽고 나면 이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공책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는 일은 모두에게 권장하고 싶은 일이다. 글을 못쓴다고 생각했던 아이도 작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다가 자기가 글을 꽤 잘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영주공고 아이들의 글은 꾸밈이 없고 솔직해서 보는 사람을 감동시킨다. 교사가 마음을 열면 아이들은-사람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연다. 지금 내 책상 위엔 이 아이들의 공책이 거두어져 있다. 나는 이 아이들의 글을 졸업CD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다.

## V. 원고를 끝내면서

영주공고에서의 나의 국어수업 실패-성공기를 위와 같이 적었다. 내용에 앞뒤도 맞지 않고 별로 형식이 갖춰지지도 않았지만 실업계 학교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될 것 같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적었다. 내가 제시한 방법들은 단지 한 실업계 교사가 싸우고 부딪치며 경험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것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작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업계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실업계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딪치다 보면 길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땀 흘리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 고민의 흔적들을 이런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